

# 불교계 여성교육 대중화 나서다

## 명상심리치료 · 리더십 · 젊은 여성불자 교육에 주력

불교계에도 여성 불자들을 위한 교육 열풍이 거세다. 사찰과 교육단체 등에서 불교 기초교리, 심리상담, 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성 불자들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국제선센터는 매달 둘째 주 금요일마다 재가여성을 초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삶을 되돌아보는 '오늘의 여성' 포럼을 진행한다. 5월 18일에는 홍성란 포교사가 강연에 나서 탈북자에 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국제선센터는 또 명상과 상담을 주제로 '명상과 불교 상담의 기초'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황수경 명상리더십센터장이 진행하는 강의는 여성들이 마음에 너저 활용법을 통해 원활한 대인관계를 맺고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불교 상담기초과정으로, 6월 30일까지 매주 금요일 마다 진행된다. (02)2650-2214

이밖에도 사회적으로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을 위한 심리상담교육도 늘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명상과 참선 등을 활용한 마음치유프로그램과 상담교육이 늘어나면서 여성불자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편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특히 매 학기마다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 불교상담심리사 사 이버과정 등을 통해 불교상담심리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또 7월까지 불교상담 프

그램 개발과정을 개설해 전문 불교상담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02)737-7378

황수경 명상리더십 센터장은 "일과 양육 모두를 수행해야하는 여성들이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건강히 하기 위해 명상심리치료를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승연 불교상담개발원 교육주임은 "프로그램 참여자의 90% 이상이 여성 불자이다"라며 "참여자 대부분은 심리상담 교육을 통해 사찰과 학교, 가정 등에서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프로그램 참가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평화재단은 6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서초구 평화재단 강당에서 여성 리더십아카데미를 진행하며 이시대 필요한 여성정신에 대해 강의한다. 강연에는 평화재단 이사장 범룡 스님, 윤여준 평화교육원 원장, 진중권 중앙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이 연사로 나서, 경제 문화 복지 언론 환경 평화 여성 등을 주제로 특강한다. (02)6925-0522

이밖에 불교여성개발원은 차세대 글로벌 여성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에서 7월 22까지 'GEP(The Way to Be a Global Buddhist Leader)'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불교



불교계가 기초교리, 심리상담, 리더십 등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불교여성개발원이 주최한 비구니 스님들과 재가여성들이 함께 진행한 GEP 프로그램 입재식 장면

에 관심있는 여학생들이 모여 자기계발, 리더십, 여성에 관한 영어 논설을 읽고 토론하는 형식이다. 프로그램 수료자는 2013년 1월에 열리는 제13차 Sakyadhita International Conference에 참가해 통번역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는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국제선센터 국제부 국장 명범 스님, 최요원 서울대 행복연구소 선임연구원, 크리스티 창 세계여성불자연합 회장 등이 강사로 나서 불교교리, 여성의 수행, 리더십에 대해 강연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또 여성 불자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상시적으로 승만경 강좌를 진행하며, 승만경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02)722-2101  
조은수 불교여성연구소 소장은 "단순히 복을 구하기 위해 기도만 하던 여성불자들이 수년 전부터 직접 불교교리를 알아가고 수행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변화가 양산되고 있다. 소외돼 있던 여성들이 점차 자신들의 역량을 두각 시키면서 여성교육이 대중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세계적으로 전문여성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교육문화가 더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 소장은 "앞으로 젊은 불자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켜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운영기관	프로그램	일정	장소	연락처	수강료
국제선센터	오늘의 여성 포럼	매달 둘째 주 금요일 오후 7~9시	국제선센터	(02)2650-2214	무료
	불교상담기초과정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낮 12시(6월 15일까지)	국제선센터		15만원
불교상담개발원	불교상담대학원 사이버 교육	매 학기 진행(매주 화목)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02)737-7378	문의
	불교상담프로그램 개발과정	7월 개시(매주 목요일 오후 3~5시)	불교상담개발원 교육실		2개월 10만원
평화재단	여성리더십아카데미	6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평화재단 강당	(02)2695-0522	40만원
불교여성개발원	GEP 프로그램	7월 22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5시	국제선센터	(02)722-2101	무료

# “불교계가 ‘느린 도시’ 만들면 예산 따라와”

## 고경환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실장, 미래복지포럼서 정부예산 방침 설명



“불교계가 도시민들에게 정신적 휴식을 제공하는 느린도시 방향으로 갈 때 정부예산 뿐만 아니라 사회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경환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장(사진)은 5월 9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개최한 5월 미래복지포럼에서 정부예산에 대한 불교계 활용 방안

을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서 고경환 연구실장은 “불교 색채를 반영해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휴식을 제공하는 ‘느린도시’(slow city) 컨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실장이 주장한 ‘느린도시’는 경쟁사회의 이면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자연생태 △전통문화 △슬로푸드 △공예품 △지역소통의 관점에서 마음의 고향을 제공한다라는 공동체 운동이다. 이미 전남 신

안·완도·장흥·담양 4개 군이 ‘느린도시’를 도입 중이다.

고 연구실장은 “이런 사업의 성공은 불교계가 가진 자원을 외부자원과 어떻게 결합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며 “2012여수엑스포, 2014 인천아시아게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 불교계가 휴식과 전통, 역사 관점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고 연구실장은 △보육·가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일자리 △소득보장 △복지전달체계 △민간자원 △

교육복지 △근로자복지 △주거복지 △에너지 △문화체육복지 △농어촌복지 등 13개 분야에 걸친 정부 담당부처의 방침과 예산 책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고 연구실장은 “실제로 저소득층에 관련해 문광부에서 스포츠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교복지기관 등이 저소득층 보살핌에 정부의 바우처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불교계 수탁운영 기관 및 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해 정부 방침 및 예산 배정에 대한 열띤 관심을 보였다. 노덕현 기자

## 젊은 불자양성에 힘 쏟겠다

### 대불총, 5월 12~13일 불철수련대회에서 3대 사업발표

대불련총동문회(회장 윤제철)가 불교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불자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대불총은 5월 12~13일 불철수련대회를 맞아 젊은 불자육성을 위해 ▷장학지원사업 ▷군포교 지원사업 ▷불교체협 지원사업 등 3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불총은 앞으로 불심이 깊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1명을 선정해 대학졸업까지 매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졸업을 앞둔 대불련 학생들에게 진로상담과 취업알선 등 후견사업을 전개한다.

군포교 지원사업은 매년 1~2개 개축불

사를 비롯해 군법회 행사 지원, 시설 지원, 군장병 교육 및 상담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 불교체협 지원사업을 통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불총은 인송중학교, 인천기계공고 등 5개 학교 학생들에게 템플스테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불총은 장학사업단장에 전명철 한국 자동차산업교육원 대표이사, 군포교지원사업단 단장에 유선재 알앤씨 사업본부장, 불교체협지원사업단에 한기성 인천기계공고 교장을 임명했다.

이은정 기자

## 노인영화감독에 300만원 지원

### 2012 서울노인영화제 영상공모 및 제작지원사업 밝혀

노인감독들이 활발한 영상제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인적 지원이 지원된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은 5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2012 서울노인영화제' 사업설명회를 열고 “노인영화를 제작하는 60세 이상 노인 감독에게 영상제작전문가를 연결하는 멘토링 지원과 제작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상금규모도 7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액수를 늘렸다”고 밝혔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KB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영화 연출 경험이 있는 노인감독들을 대상으로 영화제작의 각 단계별 과

정을 체계적으로 실행해 작품제작의 성공적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된 감독은 최대 300만원까지 제작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영상제작전문가의 멘토링 지원을 비롯해 촬영 장비에 대한 물품 지원 및 편집, 녹음, 자막 등을 위한 물품지원을 받게 된다.

영상제작활동의 물질·인적자원을 지원하기 희망하는 감독은 영화제작계획서를 작성해 제작지원신청서(http://sistiff.tstory.com)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력서 등과 함께 8월 1~14일 기간에 제출하면 된다. (02) 6911-9551 이나은 기자

## 예비 예술인을 위한 축제의 장

### 5월 18일 제36회 동백연 청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

미래 예술가들의 문화축제가 선운사 앞 마당에서 펼쳐진다. 선운사(주지 법만)는 '제36회 동백연 청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를 5월 18일 선운사 경내에서 펼친다.

이번 행사는 유치부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며, 문화예술부문과 민속체험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문화예술부문에는 백일장, 미술, 만담설화, 타악, 무용 등이 진행되며, 민속체험부문에는 제기차기, 투호, 긴줄넘기,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학부모 윷놀이, 탁본, 향토문화알기, 도예(자기 만들기), 전통매듭 만들기, 호박 만들기, 가훈쓰기 등이 펼쳐진다.

송영래 고창문화원장은 “이번 행사는 나라의 꽃이요 희망인 어린이·청소년들



에게 민속문화체험을 통해 전통문화예술을 익히게 하는 뜻 깊은 행사”라며 “많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사는 1977년 예비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1500여 명이 참가해 지역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참 회 문

백양사는 일찍이 만암 대종사께서 고불총림의 깃발(1947년)을 내건 도량입니다. 이처럼 청정한 승풍을 진작시키고 조계종의 중지와 총풍을 이어온 백양사에 금기하여야 할 뜻밖의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백양사 일부 재적승들이 방장스님의 49재를 앞두고 중단과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를 깊이 엿드려 참회합니다.

그동안 백양사는 대중이 화합하지 못하고 총림구성원들 간에 심한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또 다시 이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 무어라 참회의 말씀을 올려야 할지 참담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산중불화의 이면에는 몇몇 승려들이 백양사를 장악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입적을 눈앞에 둔 수산 방장스님 명의 문서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방장스님이 남기신 것처럼 조작 날조한 문서는 일찍이 대한불교 조계종 중단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으로 중도들의 귀와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에 앞서 지난 2010년에는 백양사 고불총림 해체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야기한 고불총림 해체사건은 백양사 위상추락과 불화와 비법의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일련들의 사건들을 참회하면서 화합하고 백양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총림의 위상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정상화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작 날조된 문서파동에 무관한 산중대중과 사부대중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림대중들은 수행과 전법등 본분사를 위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기가 태산을 짊어지는 감이 없지 않으나 불은·법은·사은(佛恩·法恩·寺恩)이 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염두에 새겨지고 피부 껍질에 침투되고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도록 노력한다고 어찌 만분의 일인들 보답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백양사 총림대중은 각자 처해진 자리에서 주체적으로 모두가 화합 협심하여 총림의 승풍 승행을 바로 세워 나가면서 총림대중 모두가 저 백공천창(百孔千瘡)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백양사 현실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불교와 승단의 흥망성쇠에 관해 설하신 7불쇠퇴법(七不衰退法)을 상기하게 합니다. 동법 제1·2를 요약하면, “자주 모여서 의논하되 화합해서 모이고 화합해서 행동하면 승단(교단)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동안 쇠망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동 3·4에서는, “새로운 것을 제정하지 말고 이미 제정된 것을 버리지 말 것이다. 그리고 경향이 풍부한 장로를 승단의 아버지와 스승같이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따른다면 불교와 승단은 쇠망하지 않는다.”고 교계하셨습니다.

백양사 총림대중들이 부처님의 이상과 같은 유훈과 산중장로들의 뜻을 받들어 수행과 전법등 수행자의 본분사를 가슴깊이 새기고 화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벌어진 사건을 백양사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다짐합니다.

불기 2556년 5월 10일

고불총림 백양사 대중 일동 · 고불총림 원로회의 위원 일동 · 고불총림 백양사 말사주지 일동